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2.15(수) 조간 (인터넷) 2.14(화) 12:00	-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이상영 (044-204-7704)

벤처기업 개발자를 위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캠퍼스에서도 진행

- 107억 투자해 19개 대학에서 820명 인력양성과 취업 연계 -

□ 선정된 19개 대학, 중소벤처기업부 유관협회의 기업 연계망(네트워크)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벤처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수도권은 명지대, 비수도권은 제주대가 대학 중 최고평가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과정인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19개교를 신규로 선정해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상표(브랜드)로, 사업(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 전문인력에 대한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체 아카데미가 개설* 됨에 따라 개발자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하였다.

* (NHN) 엔에이치엔(NHN) 아카데미, (우아한형제들) 우아한 테크코스·테크캠프 (삼성) 청년소프트웨어(SW)아카데미, (한화) 드림인(dreamin) 아이오에스(iOS) 아카데미 (크래프톤) 정글(JUNGLE) 등

**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인력 수요 최대 51만명 예상(한국직업능력연구원, '22.7)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오제이티(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이노비즈협회, (사)코리아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포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메인비즈협회

작년까지는 서울 소재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 2,200여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했다면, 올해부터는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10개 수도권 대학, 9개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 비수도권 선정대학: (전라/제주권) 원광대, 제주대, (부산/경남권) 부산가톨릭대, (대구/경북권)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전/충청권) 우송대

특히 비수도권 대학 중 최고평가를 받은 제주대는 수도권의 한국외국어대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결성해 4학년생 대상으로 상호 학점인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 공동 강의를 다수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카카오와 연계한 카카오분야(트랙) 등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소프트웨어(SW) 융합교육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개발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명지대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경영대학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대학이 연합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전공 학생들까지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하였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에서 7.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중인 6개 협·단체와 함께 기업 오제이티(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선정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그중 핵심 프로그램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라며,

“20년 동안 소프트웨어(SW)기업을 창업하고 일궈낸 개발자 출신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향후 유망한 소프트웨어(SW) 개발 분야로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인력수요와 연결해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SW/콘텐츠 분야) 개요**

□ 추진목적

○ 벤처·스타트업 **취업연계 SW/콘텐츠 개발자** 양성

※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지원(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22.5)

> **(반영내용) 스마트 제조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인력을 향후 5년간 10만명을 육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SW/콘텐츠 분야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프로그램 개발, 기업지원 협력비, 교육기자재 구입, 성과활용 확산 등

- **채용확약 수요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회원사들의 기업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훈련생 모집 및 수요기업 매칭 (50% 이상 채용약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기업에게 R&D, 판로, 수출, 인력(산업기능요원),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11,642억원 규모)**에서 **평가 가점,** 벤처창업유공 포상 신청시 가점(+2) 부여

- **훈련과정 개발**: 협회-기업-훈련기관(대학 등)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및 기업별 OJT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 **(추진 체계)** 교육부 협업사업의 경우 벤처협·단체와 대학을 활용하고 고용부 사업의 경우 대학 대신 민간학원을 활용하는 구조임

□ 주요 추진성과 / 고용부 지원사업(KDT) 활용 실적

협 · 단체	훈련기관	훈련과정	현 훈련인원
벤처기업협회	멀티캠퍼스	3	615 (수료 : 454, 교육 중 : 16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멋쟁이 사자처럼, 엘리스, 패스트캠퍼스	4	1,239 (수료 : 960, 교육 중 : 279)
메인비즈협회	더조은 아카데미	3	212 (수료 : 154, 교육 중 : 58)

참고2

2023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수행 대학

※ 실제 협약체결시 지원금액과 계약인원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단위:백만원

협단체	참여대학	계약인원	국비 지원금액	자체 대응금액
벤처기업협회	광운대학교	40	500	0
	숭실대학교	60	750	38
	인하대학교	40	500	50
	원광대학교	40	500	50
한국여성 벤처협회	강남대학교	40	500	54.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삼육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	90	1125	113
	한국외국어대학교/제주대학교 (비수도권 1위)	90	1125	130*
	동국대학교	40	500	0
	부산가톨릭대학교	40	500	0
	경북대학교/계명대학교	80	800	0
이노비즈협회	명지대학교 (수도권 1위)	60	750	75
	대구대학교	40	500	50
	대진대학교	40	500	50
메인비즈협회	영남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80	950	95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우송대학교	40	500	50
합 계		820	10,000	755.5

* 지자체 지원금 80백만원 포함시